

기고

구 자 건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미세먼지와 일자리 대책, 따로 볼 일 아니다

미세먼지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미세먼지가 호흡기질 환뿐 아니라 뇌졸중, 우울증까지 유발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엔뜻 미세먼지 대책과 일자리 창출이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 두 문제의 해결책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미세먼지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기준은 '행정부표 기준'이다. 배출허용기준과 같이

강제성이 없다. 환경기준 강화는 미세먼지 예고 기준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다. 그렇지만 이를 어떻게 유지할지는 여전히 고민으로 남는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기술적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보자. 노후 석탄발전소 폐기, 노후 급속차 조기폐차,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등과 같이 주로 공공 재원에 의존한 대책들이다. 민간 부문의 참여 유도가 미흡하다는 뜻이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차량 2부제에 성실히 동참하는 일 뿐일까?

공무원 증원이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듯이 공공 재원에 의존한 중장기적 대책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북을 치면 민간이 장구라도 칠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이란 북을 치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환

경관리자 고용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 정책은 정부가 주도할 수 있지만 창출은 민간이 한다. 공공 재원 투입에 비해 높은 환경적 편익도 기대할 수도 있다.

건설사업장을 예로 한번 들어 보자. 건설사업장은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4대 미세먼지 국내 배출원 중 '생활' 부문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이다. 그러나 건설사업장에 '전담 환경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국내 건설사업장의 경우 이른바 환경·보건·안전·품질(EHSQ) 관리 인력 중 유독 환경관리자의 선임 근거점이 없다.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선임 의무 규정이 있다. 품질관리자 역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그 배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주요 건설사업장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임에도 불구

하고 '전담 환경관리자' 선임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설사업장에서는 공사·공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환경관리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보건·안전·품질의 경우 건설사업장 내의 관리 업무라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건설사업장 외부까지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확산성이 있다. 미세먼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건설사업장의 '전담 환경관리자' 제도를 통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민간이 '고용'을 통해 화답해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합틀게 판 국가기술 자격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제도화할 경우 신규 인력의 채용이라는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은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같이 법적 사후관리 의무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둘째, 공사비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사업장을 포함시키고 셋째, 단계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환경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관련 부처의 업무 협력과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

社說

민관군의 청년일자리 창출

육군 우수 운전인력의 자격 취득 지원 등을 통해 버스운전자 취업까지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올해 1200명의 청년일 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육군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군 운전 우수인력의 취업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 방지대책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인력난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버스운수종사자의 양성 및 자격취득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육군본부는 군 운전자의 안전 운전 교육을 강화해 안전운행 역량을 확보하고 군 운전 우수인력 자격인증제를 통해 전문 운전인

력을 양성한다.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군 운전인력에 대해 운전업무에 필요한 운전적성정밀검사, 버스운전자격의 취득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버스업계의 구인과 제대군인의 구직을 연결하고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전세·마을버스 등을 포함한 버스업계에서는 군 제대인력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 버스업계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해 운전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단계적으로 그 채용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우선 올해 1200명 이상을 목표로 군 운전인력 채용을 시범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이 차질없이 추진돼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 장병들의 취업고민을 더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Table with 2 columns: 形 (Form) and 端 (End). Rows include 端 (End), 表 (Table), 正 (Correct). Definitions: 形: 몸 형상(形象·形像)이 단정(端正)하고 깨끗하면 마음도 바르며 또 겉으로도 나타남. 端: 끝. 表: 표. 正: 바름, 정.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우리 아이의 고민, 학교전담경찰과 나누도록 해주세요

최근 한 교육청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교 2학년까지 360만 명이 참여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0.8%에 지나지 않았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4%, 중학교 0.5%, 고등학교 0.4%였다. 이같이 응답률이 적고, 고학년이 진화할수록 응답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학교폭력 발생률이 낮다는 자료로도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른 시야에서 볼 수도 있다.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대다수는 작고 순한 우리 아이들이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당하다보면

아이 주변의 친구들까지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피해 아이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엔 혼자 남겨두고 만다. 아이는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게 되고, 마치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결국 가족에게조차 숨길 가능성도 있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자신의 오점으로 여기고, 숨기고, 결국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것이다. 서두에서 말한 설문조사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보여주는 자료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하다.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 TV와

인터넷 등 매스컴의 역할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숨기고 견디며,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결국 예방만큼 대처도 역시 중요하다.

위와 같은 아이에게는 나와 관련이 없고, 철저히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상담 대상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우리 경찰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경찰이 되어야 한다. 경찰은 117학교폭력상담센터와 스마트폰 '117CHAT' 앱을 통해 상담 대상자의 비밀을 철

저히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제도를 운영하며 학교마다 담당경찰관을 지정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전문 경찰관을 두고 있다.

우리 아이에게도 때로는 부모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었으면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117상담센터를 알려주고, 우리 아이의 휴대폰에 '117CHAT' 앱을 설치해주시, 우리 지역의 경찰관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게 해주자.

경찰은 '나쁜사람을 잡는 사람'이 아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상훈 /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two women.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If we swap our positions, how would it be?). Includes a quote: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If you think about the other person's position once more, wouldn't you be more considerate and respectful to each other?).